

#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 가전제품 판매 사기 급증

## 판매자 현금 결제 직거래 요구시 주의 필요



최근 옥션,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올려놓고, 가전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연락해 직접 거래할 경우 인터넷 판매가격보다 더 할인해준다고 판매자와의 직접 현금거래를 유도한 후 잠적해버리는 판매 사기가 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 소비자 L씨는 G마켓에서 드럼세탁기를 구입하였지만 재고가 부족해 주문을 취소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후 해당 판매자가 재고가 있다면서 다시 연락을 해와 알려준 물류센터 담당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하였다. 카카오톡 아이디는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으로 확인됐고, 판매자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제품을 빨리 배송해 준다고 해 60만원을 바로 입금했는데, 배송되기로 한 날짜가 며칠이 지나도 제품이 배송되지 않고, 이제는 전화 연결도 안된다면서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해왔다. ”

이번 오픈마켓 쇼핑물 사기 피해 수법을 살펴보면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최저가로 등록한 후 소비자가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판매자가 구입한 소비자에게 연락해서 현금 거래를 할 경우 인터넷 판매가격보다 10~15% 더 싸게 판매한다고 접근해 소비자에게 카카오톡 ID를 알려주고, 소비자가 현금을 입금하면 제품 배송이 안되고,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수법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오픈마켓에서 가전제품을 최저가로 검색해 구매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등록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판매자가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현금 구매를 유도할 경우 사업자 소재지나 전화번호 등 사업자 정보를 관할 구청에 확인해 본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구매 시 판매자와의 대화나 관련 자료는 캡처해 보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오픈마켓 가전제품 판매 사기의 경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도용하여 국내 사이트가 아닌 중국에서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경우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기죄로 경찰에 고발조치 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오픈마켓 사업자들도 이러한 판매 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주의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카카오톡을 통한 금전거래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카카오톡이나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모니터링과 개별 판매자에 대한 관리 방안마련이 필요하다.